

Lord's Day Worship Service

예배로의 초대/ 사회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다같이

*사죄를 위한 침묵의 기도/ 다같이

*참회의 기도/ 다같이

*용서의 찬양/ 다같이

보라 어린양 예수 세상죄 모두 지셨네 보라 어린양 예수 나의 죄 모두 지셨네
나는 알았고 고백하리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는 주의 어린양 나의 죄 모두 지셨네

*사죄의 선언과 감사의 권면/ 사회자

*감사의 찬양 및 봉헌/ 다같이

||:오 주님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해:||

예배 중 기도/ 말은이

기도송 / 다같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찬송/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 다같이

성경교독/ 고린도전서 2장 6절 - 3장 4절 / 다같이

설교 및 기도/ 설교자 (2면 참고)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다같이

*축도/ 담임목사

광고와 교제/ 다같이

*표는 일어서기입니다.

설교: 이성계 목사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오늘 본문(고전 2.6-3.4)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셋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프뉴마티코스’라고 부릅니다. 프뉴마티코스, 즉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와 다릅니다. 바울은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만 말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악령이 고드기는 것을 분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두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성령을 말할 때 프뉴마라고 하는데, 프뉴마는 하나님의 성령(프뉴마 투 데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프뉴마 투 안드로푸), 세상의 영(프뉴마 투 코스 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에 따라 이게 어떤 영인지 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악령을 놓고 성령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육신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짜르키노이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즉 ‘호스 네피오이스 엔 크리스토’란 말을 씁니다. 바울은 토로하기를 이들은 본디 어린 아이라서 밥을 먹일 수가 없어 젖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가 보다라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을 벌이면서 웅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란 말인가...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향해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도 그들은 육신의 사람들로 머물러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

바울은 마지막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뽀히코스’에 대해 논하는 것이지요. 우리 말로는 육신이나 육이나 같은 말 같지만 헬라어로는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들을 ‘뽀히코스 데 안드로포스’라 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2.14)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지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이교회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24-2 산두로 255-8 우편번호) 10357
031-905-8291, 031-906-7754
공식계좌: 국민은행 166101-04-184638 (예금주) 모든이교회
Modenee Presbyterian (Tong-Hap) Church of Korea
WebSite: modenee.kr
E-Mail: modenee@me.com
담임목사: 이성계

정기모임

주일예배 1부 일요일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오전 10시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시
예레브 사발 금요일 오후 7시

2023년 토라의 절기
(해당일 일몰에 시작)

히브리력 5784년

로쉬 하 사나 9월 16-17일

욘 키푸르 9월 25일

수꼴 9월 30일 - 10월 6일

쉬미니 알찌렐 10월 7일

헤쉬반 월 시작 10월 16일

키슬레브 월 시작 11월 13일



다소 출신의 벤야민 사람 바울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아의 타르서스입니다. 타르서스에서 북쪽으로 400킬로미터쯤 가면 초대 교회 사람들이 은둔해 살았던 그 유명한 동굴의 도시 '카파도키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도키아에서 또 그 만큼 북쪽으로 가면 히타이트 문명의 발생지인 '하투샤'가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 다소는 로마제국 영토 안에 있었고 고린도, 에베소 등과 더불어 교통의 요충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대와 비슷한 연대에 이 곳 다소에서 벤야민 지파에 속한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를 부자로 추정하는 것은 그가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가 부자라는 뜻이며 아울러 그 배경에 로마 귀족이 있다는 뜻입니다. 행 22.28.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이 관련이 있다면 바울은 일찌감치 예루살렘 유학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13세에 치르는 바 미쯔바, 즉 성인식 후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유대 전통과 율법에 대해 공부를 했을 겁니다. 행 22.3에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가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라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아버지가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을 만나 그 문하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유대 전통과 율법은 귀한 것이라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힐렐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나무를 해다 팔고 학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또는 지붕에 올라가서 몰래 강의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세계에서는 돈이 없으면 토라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칙적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맞은 광채로 인해 그의 눈이 멀게 되지요. 행 9.1-8. 이후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치유하고 또 그로부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사울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고향 다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갈 1.17 이하에 따르면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다메섹을 탈출한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다메섹으로 갔고 이후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났다고 합니다. 15일 동안 바울은 게바, 즉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고 하지요. 이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려 했지만 그의 악명으로 인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별 수 없이 바울은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시장 바닥의 일을 감당하면서 쓰임받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사울로 불리워 졌습니다. 그의 조상인 벤야민 사람 사울 왕과 같은 이름이지요.



Weekly Modenee

No. 48, November 26, 2023

알려드립니다

- 1) 키슬레브 월입니다. 키슬레브 25일인 12월 7일 일몰부터 8일 동안 '빛의 절기'라 하는 하누카입니다. 올해는 12월 3-24일이 대강절(Advent)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크리스마스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 2)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와 또 다른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처에서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할 때입니다.
- 3) 우리 교우 중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한 아픈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